

(주) 뉴인텍

국내 최대 필름콘덴서 전문업체

뉴인텍(구 극광전기)은 68년 설립된 국내 최대 필름콘덴서 전문업체로 30여년간 외길을 지켜온 대표적인 회사이다. 정보통신 사업을 강화한다는 회사의 전략적 차원에서 2000년 4월 회사명을 구 극광전기에서 '뉴인텍'으로 바꿨다.

뉴인텍은 AC콘덴서 뿐 아니라 필름콘덴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속증착필름을 89년부터 생산하여 도약의 발판을 다졌고 92년에는 고화질 모니터에 사용되는 HDTV용 콘덴서를 개발, 생산한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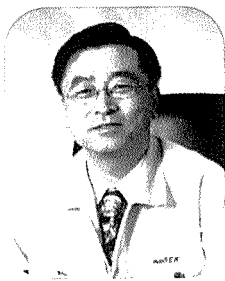
특히 HDTV용 콘덴서는 디지털 TV의 화질개선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으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고 NT마크를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2년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 현재의 모니터 시장외에 대형 TV 시장이 형성되어 폭발적인 수요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인텍의 HDTV용 콘덴서는 2000년 3월 국내 2위업체인 SMC의 생산라인을 인수하여 확고하게 국내 1위에 올라섰고, 월 2백만개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업체로 부상했다. 이로인해 국내 시장점유율도 50%까지 확대되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신규 출하되는 모니터의 5대중 1대꼴로 뉴인텍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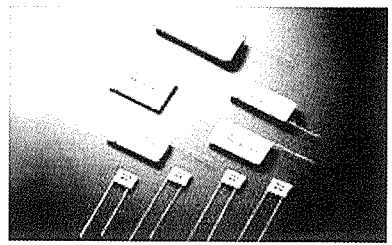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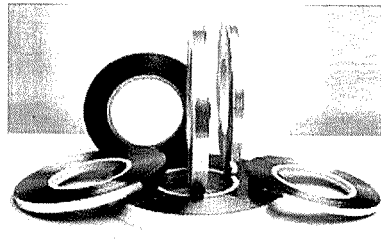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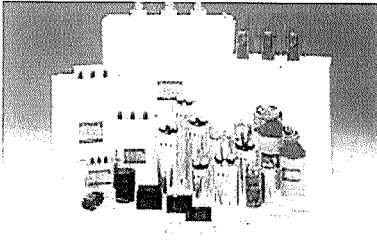
한편, 2000년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화질개선용 콘덴서의 또다른 부품인 스피드업 콘덴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월 2백만개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 스피드업 콘덴서는 일본에서 100% 수입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간 1천만불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써 뉴인텍은 디지털TV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휨을 보정하는 HDTV용 콘덴서와 화면의 중앙과 가장자리 부분의 초점을 맞춰주는 SPEED UP 콘덴서를 모두 생산하게 되어 화질개선용 필름콘덴서 전문메이커인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화질개선용 콘덴서에 사용되는 AL 증착 필름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2000년 11월부터 양산에 투입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대표: 장기수
- 본사: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45-5
- TEL: 041-541-8100
- FAX: 041-541-4797
- http://www.nuin.co.kr
- 주요생산품목: 콘덴서, 금속증착필름,
FBT용 콘덴서



이를 위해 뉴인텍은 독일에서 필름증착기를 추가로 2대 확보하고 콘덴서에서 원자재까지 일괄 생산을 통한 메리트를 극대화 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기기기용 콘덴서(AC콘덴서)시장은 5백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98년까지는 IMF영향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회복되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7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뉴인텍의 국내 AC콘덴서 시장점유율은 약 35% 수준으로 업체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최근 들어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에는 96년에 극광전기 소주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 내수 시장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아세안의 무관세화에 대응키위해 태국에 합작회사인 뉴인텍VRK(주)를 설립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2001년들어 CALLER ID등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여 4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차세대 아이템을 발굴하여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뉴인텍은 현재 HDTV용 콘덴서와 스피드업 콘덴서의 생산량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각 제품 모두 월 2백만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지배력에서 확

고한 선두 위치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0년말에 증설한 필름 증착 설비 2대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이에따른 안정적인 자재 공급및 수익 개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력 아이템인 AC콘덴서는 주로 해외공장에 투자하여 중국공장의 경우 월 5백만에서 8백만uF로 증설하고 태국 공장은 월 3백만uF의 캐파로 운용하여 국내보다는 해외에 주로 시설을 증설하고 본사는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뉴인텍에서 근래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정보 통신 부분은 올해부터 결실을 맺게 되어 금년 4월 부터 CALLER ID의 생산,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세대 뉴인텍을 끌어 갈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정보 통신 사업과 콘덴서 관련 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